

제 3 강. 평신도 목회론

1부. 평신도란 누구인가?

1. 평신도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원래 ‘교회’라는 말은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던 것이 아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 즉 회중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불러모은 회중 즉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주님은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땅 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양적 부흥에 따라 각 지역별의 모임 장소가 생겨나며, 또한 예배를 위한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이다. 지역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교회 건물은 성도들의 모임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는 곧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 즉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성직자와 평신도를 모두 포함한 사람들이 곧 교회인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2.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평신도라는 말은 소위 평신도와 성직자를 모두 포함한다. 초대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적어도 신분적인 구분(Difference in Status)은 아니었다. 성직자(clergy)라는 말도 3세기에 이르러서야 교회에서 어떤 직위를 지니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귀족과 평민 계급의 구별이 더욱 분명해 지는 시대적 상황에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직자와 평신도는 점점 신분적인 구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급기야 트리트 공의회 (1545-1563)에서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서리부제, 복사(acolyte), 귀신 쫓아내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문지기 다음에 평신도가 놓이게 된다. 그리고 성직자는 서품성례를 통하여 사도적 권위와 권한을 승계 받으며, 평신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초자연적 은혜를 평신도와 불신자들에게 매개시켜 주는 신분적 위치를 갖게 된다.

종교개혁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 이라는 세 가지의 큰 명제가 있었다.

루터의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 등을 보면, 루터는 성직을 계층 구조로 이해하는 로마 가톨릭에 반하여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신분의 차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서로가 맡은 직책이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이러한 신분적 구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루터의 주장은 평신도의 사역과 사역자로서의 직분에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주요한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용어는 직능으로써의 구별을 나타내는 것이지, 신분적인 구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사역의 특성과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나 것이다.

3. 평신도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많은 부분을 제자들 양육하시는 데에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신 후에 세우셨다. 이처럼 사역자는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양육되고 만들어진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 평신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간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평신도들이 양육 받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가져야 한다.

주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모든 교회 구성원 즉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모든 평신도들에게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았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성도는 맡겨진 직책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평신도들은 자신이 처한 영역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인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역과 영역에서의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대사(大使)인 것이다.

2부. 평신도 목회란 무엇인가?

1. 새로운 목회론

평신도 목회란 목회의 축을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평신도)중심으로 이동한 목회패턴이요, 동시에 피라미드 형태의 상하 관계에서 수평 형태로 전환한 목회패턴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축과 틀이 바뀌어진

것뿐이다.

평신도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의 한 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전지전능한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 목회 사역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목회에 필요한 하나의 기능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코치와 같고 성도들은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운동 선수와 같다. 코치와 운동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이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움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다. 여기에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며 동시에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2.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

평신도 목회라는 새로운 목회패턴이 결코 목회자의 위상을 흔들거나 낮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발상법의 차이일 뿐이다.

목회자는 계속 설교하며 심방하며 행정을 하는 등 목회를 한다. 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 일에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전문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단지 목회자가 그 목회를 마치 자기의 전유물처럼 독점하여 모든 성도를 자신의 일꾼이나 하수인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시녀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헌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이다.

3. 평신도 사역훈련원을 세우라.

현재의 신학교육의 문제는 전문신학의 훈련은 있으나, 그 신학이 살아있는 목회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목회자는 현재의 패턴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평신도 목회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를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동역자로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의 지역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위해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지역교회의 신학교육은 전문 목사직이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신도의 올바른 신학적인 터전을 닦아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교와 같이 평신도를 양육하는 일은 바로 평신도 목회를 꿈꾸는 지역교회의 몫이 된다.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는 평신도 사역 훈련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원의 과정은 평신도들이 가진 전문성과 은사를 극대화시켜 주며 사역현장에 잘 적

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만들어 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소 신학교는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사역 훈련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평신도 사역의 지평을 열어라.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직무분석을 통해 교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전 성도를 대상한 은사계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모든 성도들이 적재적소에 그들의 열정과 은사에 가장 알맞는 사역에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은 인위적인 구조 보다 자연스러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교회에게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사역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그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역의 장을 열어 줄 때 사역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된다.